

전북 홀로그램 산업 관련 일자리창출 토론회

전북특구·군산강소특구 공동 투자IR 개최

전북도·전북대, '고용안정 선제대응 위한 패키지 포럼' 개최... 방안 구체화해 일자리 지원사업 반영 추진

전북도와 전북대학교가 '고용안정 선제대응을 위한 패키지 포럼'을 라한호텔 기와마루홀에서 12일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이하 고선제 사업)의 일환으로, 전북의 홀로그램 산업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연계한 일자리창출 방안을 마련하고자 준비했다.



전북도와 전북대학교가 '고용안정 선제대응을 위한 패키지 포럼'을 라한호텔 기와마루홀에서 12일 개최했다.

이에 홀로그램 산업 전망뿐만 아니라, 전북도 일자리창출 정책 수립방향에 중점을 두고 포럼을 열었다.

포럼 발제는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최용석 원장의 '전북 홀로그램산업 현황과 전망' 및 원광대학교 전자공학과 강홍준 교수의 '홀로그램기술, 산업, 서비스, 그리고 일자리창출 전망'이라는 주제 발표로 진행됐다.

최용석 원장은 "청년유출 심화 및 초고령사회인 전북 지역에 홀로그램은 대안이 될 수 있는 미래산업분야이다"며 "전북이 홀로그램 산업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홀로그램 핵심 기술 선점 및 인프라 지원, 전문기업

유치와 청년 인재양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홍준 교수는 "홀로그램은 4차 산업혁명 선도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의료, 자동차,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가능하고, 취업 유발효과 또한 큰 산업이다"면서 "급속한 시장 성장세에 발맞춰 인력양성 등 선제적 차원

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이어진 토론회에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전북본부, 한국조명ICT 연구원 남부본부, (주)홀로랩, 전북연구원 등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토론자들은 전북 홀로그램 산업의 육성 및 일자리창출이라는 큰 주제를 갖고 각기 다른 시각에서 열린 토론회

를 진행했다.

전북연구원 이지훈 연구위원은 "홀로그램은 하드웨어 측면의 기술개발도 중요하지만, 홀로그램으로 구현되는 콘텐츠 개발(소프트웨어)도 핵심분야이다"며 "홀로그램 콘텐츠 개발 핵심인력을 양성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양측면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가져갈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이번 포럼을 통해 도출된 홀로그램 산업 관련 일자리창출 지원 방안을 좀 더 구체화해 고선제사업 등 일자리 지원사업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석 도 일자리경제정책관은 "홀로그램 산업은 자동차산업 위기근로자를 재배치하고, 청년 일자리창출을 위한 산업으로 매우 적절하다"며 "포럼을 통해 도출된 방안을 토대로 자동차산업의 위기근로자들의 이·전직 등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유망기업 한 자리에 모아 투자자 참여 확대 위해 추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강병삼, 이하 특구재단)은 전북테크비즈니스에서 전북권 기술기반 스타트업에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전북특구·군산강소특구 공동 투자IR'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투자IR은 지역특구 단독 프로그램이 아닌 전북특구와 군산특구의 특화분야 유망기업을 한 자리에 모아 투자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투자자 참여 확대를 위해 공동으로 기획 추진됐다.

특구재단은 기업들의 실질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리더스기술투자, 스파크랩 등 투자자금을 보유한 11개 전문투자기관을 초청해 유망기업 10개사를 소개하고, 투자상담 및 네트워킹을 진행했다.

유복합소재부품, 친환경자동차 등 특화분야 중심으로 발굴된 참가기업들은 나트륨 이차전지, 차세대 배터리 재활용 기술, 전기자 검사·진단 솔루션 등 기업별 혁신적인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발표했고, 투자자와 참가기업간 사전매칭을 통한 1:1 투자상담 및 컨설팅도 연속적으로 진행됐다. 특구재단은 투자자들의 검토의견을

토대로 후속 미팅을 지원해 기업들의 투자성사를 지속적으로 도울 예정이다.

또한,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보육하고 투자자와의 연계를 지원, 기업성장 및 자금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타 지역에 비해 투자인프라가 열악한 전북권 투자유치를 위해 지역내 14개 혁신기관들과 협력해 추진한 '전북권 통합IR(전북 투자광광위크, 10.12~10.14)' 행사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리더스기술투자 박승욱 총괄사장은 "리더스기술투자는 창업 초기 기업부터 상장사까지 다양한 투자처를 찾고 있다"며 "개별 특구별로 산재해 있는 우수 기업들을 특화분야별로 모아 한 곳에서 진행하는 IR은 투자자 입장에서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특구재단 강병삼 이사장은 "지역 혁신기관과 함께 협업해 조성하는 투자생태계는 지역 기술산업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지역 혁신기관 및 특구간 협력을 통해 기술금융 활성화를 통한 기업 성장에 힘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백제역사유적지구 국제학술포럼 '디지털 헤리티지' 개최

'디지털 헤리티지: 기록, 활용, 그리고 보존'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디지털 헤리티지와 관련된 정책, 기술, 콘텐츠 등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가 열린다.

(재)백제세계유산센터(이사장 이우성, 이하 센터)는 백제역사유적지구 국제학술포럼 '디지털 헤리티지'를 오는 14일 공주 아트센터 고마에서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재)백제세계유산센터가 주최하고, 문화재청과 충남도, 전북도,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에서 후원하는 이번 포럼은 최근 디지털 뉴딜의 확산에 따라, 세계유산 보존 및 향유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포럼은 유동환 건국대 교수의 기조강연, 6건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순서로 진행되며, 비대면 온라인 형식으로 센터 공식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우성 백제세계유산센터 이사장은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이 일상화되면서 세계유산 보존·관리·활용 및 교육에 미치는 디지털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 다루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군산~제주운항 재개 1주년' 성공적 안착

코로나19 이전 2019년도 9월 동기 대비 군산공항 운항 편수 24% 증가·탑승객 87% 수준 회복

군산공항이 군산과 제주를 잇는 항공노선 재개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코로나19 이전 대비 87% 수준의 탑승객을 보이며, 도민들의 높은 항공 수요를 나타냈다.



군산공항이 군산과 제주를 잇는 항공노선 재개 1주년을 맞이해 코로나19에도 성공적 안착을 했다

전북도가 진에어와 제주항공이 군산~제주운항 증편 1주년을 맞아 코로나19에도 성공적 안착을 했다

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19년도 9월 동기 대비 군산공항의 운항 편수는 24% 증가, 탑승객은 87% 수준까지 회복하며 지역 주민들의 교통 수요에 부응하고 있다.

지난 9월까지 1,756편이 운항하고, 이를 통해 약 19만 명이 군산공항을 이용하며, 전북도민의 항공교통편의를 크게 향상시켰다. 군산공항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 지침에 따라 공항 활성화 활동에 제한이 있지만, 코로나 종식 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승객의 편리한 여행을 위해 시설개선과 인력 보충에도 적극적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군산공항은 먼저 올 상반기 약 4억5천만 원을 투자해 탑승 수속시설 일체를 개설했다. 컨베이어벨트 신규 설치로 수하물 자동 운반시스템을 구축해 신속한 수하물 운반으로 여객과 항공사 편의를 크게 향상시켰다. 또한, 기존 항공사별 개별적으로 사용하던 체크인카운터와 안내용 행잉 사인 등을 같은 모델로 통일해 통합운영체계를 구축했다. 향후, 항공사 변경 및 운항편수 증감 시 탄력적 대응으로 고객에게 빠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2022년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공모 선정

전북도가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2022년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공모'에서 2개소가 선정되며, 국비 1억 원을 확보했다.

'무궁화동산'은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나라꽃 무궁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나라꽃에 대한 국민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산림청에서 추진한 사업이다.

도는 이번 산림청 공모에서 전주시 덕진구 우이네거리 일대와 남원시 교동산관광단지 선정돼 각 5천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별 1억 원 규모의 무궁화동산을 조성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대응해 전주 문화대공원, 군산 구암 3·1공원 등 주요 공원에 13개소의 무궁화동산을 조성했다.

올해는 익산 서동농촌테마공원과 부안 지방정원 연결지에 1.35ha 면적의 무궁화동산을 조성하는 등 생활 속 무궁화 보급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허진 도 환경녹지국장은 "나라꽃 무궁화는 5대 국가상징 중 하나로, 일상 생활 속에서 누구나 쉽게 무궁화를 접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적극 보급해 무궁화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장애아 가족 돌봄 전문조사 실시

전북도가 하반기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사업' 대상자에 대해 전문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장애아동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 돌봄과 일시적인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업이다. 만 18세 미만 중증 장애아동을 둔 가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일정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충족 시 본인부담금 없이 '장애아 돌봄 지원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이번 조사 대상자는 현재 장애아 돌봄비를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 245명이다. /유호상 기자

모 집	전주교육대학교·우석대·원광대 군산대·전북과학대 평생교육원	상 담
스피치 · 긴장해소 · 면접 · 웃음코칭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옥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울려면 역시 김양옥입니다. 저렴한 등록금,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을 기대합니다.		
	<p>▷ 전담교수 주요경력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주교육대학교 전담교수 전북대학 토론과 면접 담당교수 역임 스피치자격시험 검정위원 한국스피치,웅변협회 전북회장 전북인재교육원 및 기관, 단체 특강교수 KBS TV 아침마당, MBC TV, JTV, TBN 출연 및 강의자 스피치 칼럼리스트 평생교육사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전주매일 부사장 	
< 각 지역별 모집 > < 누구나 학습가능함 >		
학교별	주요과정	지역별(자유선택)
전주교육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지도사(자격증)(야간) 스피치 긴장해소,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전주, 임실, 완주
우석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지도사(자격증)(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전주, 완주, 진안
원광대학교(익산)	스피치&긴장해소(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익산, 논산, 강경
군산대학교	스피치기법퍼러디립, 스피치지도사(자격증)(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군산, 서원, 부안
전북과학대학교(정읍)	스피치지도사(기초,고급,자격증)(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정읍, 고창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기법과 웃음코칭(야간)(웃음자격증)	남원, 장수, 순창
김제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웃음코칭(야간)(웃음자격증)	김제, 부안
상담전화 : 285-6676, 231-6669, 010-7304-5665(주,야) ※ 수시 선착순 모집하여 학교별로 개강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